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5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다섯 남자의 오!머니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당신의 여자>
9 00 논설주간 세상보기 황호택의 눈을 떠요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신문으로 보는 세상	00 중계방송 제 63주년 6·25전쟁 기념식 45 KBS 파노라마 플러스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0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한국인의 박사(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출발 드림팀 시즌2(재)	00 2013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샌프란시스코>	00 SBS 생활뉴스 40 KBC 생활뉴스
12 20 뉴스 와이드	00 KBS 뉴스12			00 SBS 12 뉴스 20 2013 FIFA U-20 월드컵 <대한민국:포르투갈>
1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정전60년 인코르 다큐 <희생제이 이야기 61년인의 해후>	00 황금카메라(재)		
2 3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10 한국재발견(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통일전망대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창이 보인다
3 40 이연경의 직언직설	00 강연 100℃(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후두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3시 뉴스 10 TV탐상 꾸러기 식사교실 베스트	10 하늘에서 본 알프스(재)
4 50 김광현의 텃밭평명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보물섬-제주>	00 최강합체 엑스마스터(재) 30 TV유저원(재)	00 뽀뽀뽀 아이즈아 30 도비도비	00 꿈의 보석 프리즌스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꼬마사랑 콩도령 30 영상앨범 선(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프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뉴스 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시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신나군	05 토코콘서트 <화통>
7 10 6·25 특집다큐 기적의 땅 DMZ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웃남이 주의보>
8 10 박종진의 쾌도난마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20 아구가 좋다 50 1대 100	55 MBC 특별기획 <구일하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현장21
9 4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킬투의 배란다소	
10 00 정전60년 특집 다큐 <기적의 김치 피아브> 50 다큐 공감		00 월화드라마 <상어>	00 월화특별기획드라마 <구가의 서>	00 월화드라마 <정유정, 사랑에 살다>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 라인	20 우리동네 예체능	20 PD수첩	20 화신 마음을 지배하는 자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2013 코리아 스피드페스티벌(재)	00 KBS 글로벌 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뉴스 10 KBS 골격학 다큐(재)	30 해외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①:2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15 MBC 뉴스 24 25 MBC 100분 토론	50 나이트라인 ①:10 여행의 발견



# “세월이 준 연륜 눈빛 깊어졌죠”

20년만에 첫 악역

## 감시자들

제임스 역 정우성

배우 정우성(사진)이 ‘감시자들’로 스크린 복귀작으로 악역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시나리오를 읽어보니 제임스가 서브(sub) 캐릭터인데도 누가 하나에 따라 영화 전체의 긴박감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더라고요. 내 눈에는 이 역할이 다른 시나리오들의 메인 캐릭터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본 캐릭터를 다른 배우가 하는 걸 보기는 싫었어요. 이렇게 표현했다.

“언제나 ‘나이를 잘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대가 되면 남자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30대가 되니까 20대랑 별반 다를 바 없더라고요. 30대 중반에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40대가 되니까 이제 남자가 됐구나 싶고 될 줄 알게 된 느낌이 들어요. 표현 방식에서도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죠. 배우로서도 20년이 되니까 여유가 많이 생겼고요. 그게 경력이 주는 연륜인 것 같아요.”

이번 영화 ‘감시자들’ 역시 그런 연륜과 선구안이 없었다면 실패했을 거라 생각했다. 주인공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냉혹한 악당(제임스) 역할이다. 제작사에서 정우성이 이 역할을 맡아 줄 거라는 기대 없이 시나리오를 건넸다

고 한다. 다른 작품을 마다하고 4년 만의 크린에 돌아왔다. 영화는 ‘호우시절’(2009) 이후 4년 만이다.

데뷔작 ‘구미호’(1994)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로 배우 경력 20년차, 40대 들어 첫 영화를 맞이하는 그의 감회는 남달라 보였다.

“어렸을 땐 눈에 독기(毒氣)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깊어진 것 같아요.” 24일 만난 그는 지난 세월이 준 연륜을 이렇게 표현했다.

“언제나 ‘나이를 잘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대가 되면 남자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30대가 되니까 20대랑 별반 다를 바 없더라고요. 30대 중반에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40대가 되니까 이제 남자가 됐구나 싶고 될 줄 알게 된 느낌이 들어요. 표현 방식에서도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죠. 배우로서도 20년이 되니까 여유가 많이 생겼고요. 그게 경력이 주는 연륜인 것 같아요.”

이런 영화 ‘감시자들’ 역시 그런 연륜과 선구안이 없었다면 실패했을 거라 생각했다. 주인공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냉혹한 악당(제임스) 역할이다. 제작사에서 정우성이 이 역할을 맡아 줄 거라는 기대 없이 시나리오를 건넸다

이 영화에서 정우성은 기존의 악당들과는 사뭇 다른 캐릭터를 보여준다. 고층빌딩 옥상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며 범행 작전을 지휘하는 그의 모습은 강한 카리스마를 뽐내다. 절제된 손놀림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액션 장면도 압권이다.

클라이맥스에서 해당하는 액션 시퀀스에서 그는 17명을 상대로 싸우는 액션 연기를 직접 해냈다. 그의 히트작 ‘비트’의 명대사인 “17대 1 싸움”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연출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룹 G.O.D의 뮤직비디오 몇 편을 연출했으며 최근에는 휴대전화 ‘갤럭시 S4’의 광고 영상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감독이 오히려 자신의 적성에 더 맞는 것 같다는 얘기도 했다.

“현장 촬영도 재미있지만, 편집실에 들어서 작업하면서 작품이 하나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나를 때 띄게 짜릿한 느낌이 있었어요. 2000년대에 G.O.D 뮤직비디오 ‘그대 날 떠난 후로’를 찍었을 때 편집실에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처음 느꼈죠. 감독으로서 전체적인 걸 다 고민하게 되고 모든 캐릭터에 대한 희로애락이나 당위성을 생각하는 게 적성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연한뉴스

EBS

06:00 건강향 아침	09:40 텃밭 이야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8:45 미앤미로봇
06:30 한국기행	09:50 지구를 지켜라	15:00 꼬마기사 마이크	19:00 EBS 뉴스
06:30 도전! 직업재민	10:10 세기테마여행	15:10 풍광짜짜 라라	19:25 지식재널(재)
07:00 곤	(시간이 멈춘 섬, 물다 2부 -지중해의 맛, 물다 참차)	15:30 꼬마거북 코롱클린	19:30 달라졌어요
07:15 미앤미로봇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마이 모험	20:20 얼마 없이 살아가기
07:30 마이의 모험	(김은경의 맛집 제대로 따라 잡기 -해물 카레 우동과 채소 피클)	16:00 당동명 유치원 1~2(재)	20:50 세계테마기행 <인도 뱅골만>
07:45 뽀뽀뽀 뽀로로	11:20 부모	16:20 케니날	21:30 한국기행 <시라산 둘러보기>
08:00 당동명 유치원 1~2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뽀뽀뽀 뽀로로(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인	12:10 EBS 다크프라임	17:45 숲 속 친구 피파블라(재)	<창사특집-피팩트 베이비>
08:30 로보카 폴리	12:10 EBS 다크프라임	17:00 방귀대장 뽀뽀(재)	22:45 장수-기적 건강의 비밀
08:50 숲 속 친구 피파블라	13:05 EBS 스페이스 공감 2	17:10 로보카 폴리(재)	23:15 특별생방송 <세태공감 6·25>
09:00 방귀대장 뽀뽀	14:00 지식재널	17:25 놀이터 구조대, 뽀인(재)	24:30 하늘에서 본 세계
09:15 코코몽2	14:05 영어유치원 요! 기바기바	17:4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4	24:55 외산상담
09:30 캐니널		18:30 곤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지리> 11:40 <강승희의 윤리와 사상>
00:50 내신 6강	<수학(상)>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1:40 <일반사회>	13:00 탈스런 <박봉의 사회문화>
02:30 포스 <회법과 직문>	14:00 인터넷 수능 <독서-문법-회법-직문(A)>
03:20 <독서와 문법>	15:00 <독서-문법-회법-직문(B)>
04:10 <수학 I A형>	16:00 기술플러스 <수학 II & 직통&기백>
05:00 <수학 I B형>	17:00 인터넷 수능 <독해(B)>
05:50 <미적분과 통계기본>	18:00 EBS 수능특강 <국어(A형)>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19:00 <영어(B형)>
07:30 <Basic Grammar>	20:00 <영어(A형)>
08:20 틱스런 <법과 정치>	21:00 <영어(B형)>
09:10 <동아시아사>	22:00 <통계 I>
10:00 <경제>	23:00 <적분과 통계>
10:50 <김봉준의 한국지리>	23:50 지식재널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초등 내공 남남 <수학 3-1>
07:30 EBS 생활영어	15:50 <수학 4-1>
08:0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 강좌	16:20 <수학 5-1>
08:30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강좌	16:40 <수학 6-1>
09:10 TV중학 <국어(상)>	17:20 초등 개념 잡기 <수학>
09:50 <수학(상)>	18:00 중학 개념 끝장내기 <영어>
10:30 중학개념 끝장내기 <세계사>	18:40 <영어>
11:10 TV중학 <사회(상)>	19:20 리얼리티쇼 <유아독존>
11:50 TV중학 2학년 <영어(2-1)>	20:00 나의 첫 번째 영어쓰기 노트 <영어(2-1)>
12:30 <비문학(2)>	20:40 초등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과학(1-1)>
13:20 동물일기	21:20 통영 신공 <사회(3-1)>
13:50 키득키득 실험실 <영어(B형)>	22:00 중 3 파택 체코업 <사회(3-1)>
14:00 직장학 개론 <영어(3-1)>	22:40 TV중학 3학년 <영어(3-1)>
14:40 나의 성공비결 <비문학(3)>	23:20 <비문학(3)>
15:10 과학이 특목!	24:00 친절한 속 익힘풀이 6-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5일(음 5월 17일 壬戌)

子	36년생 분수에 맞아야 무리가 없다. 48년생 지나치다면 건조해 질 수도 있다. 60년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때다. 72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희망이 보인다. 84년생 믿는 도가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24, 66
丑	37년생 인과 관계를 살필 수 있어야겠다. 49년생 지출은 투자 가 될 것이나 아까워하지 말라. 61년생 객관적인 인식이 정확한 판단으로 이끈다. 73년생 소문이 사실로 확인 되겠다. 85년생 진퇴양난이로다. 행운의 숫자 : 07, 73
寅	38년생 우연을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위험하다. 50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62년생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게 된다. 74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성가시겠다. 행운의 숫자 : 33, 86
卯	39년생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초기의 모습이 되겠다. 51년생 행한 만큼에 비례해서 실리가 따르리라. 63년생 알면서도 회피한다면 곤란해진다. 75년생 분출구가 없다면 반드시 한계 상황에 이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66
辰	40년생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느니라. 52년생 첫 번째의 건이 가장 실속 있고 유력시 된다. 64년생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면 유익하리라. 76년생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생사적이다. 행운의 숫자 : 51, 42
巳	41년생 맞추면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느니라. 53년생 으뜸이 없으면 버림을 취하는 것도 무방하다. 65년생 용도를 달리 한다면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77년생 가끔씩 실무자와 관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21, 77

午	42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54년생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생길 것이다. 66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78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용감하게 응대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75
未	43년생 의지하기에 충분한 보수가 될 수 있겠다. 55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장점이 특기를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이니라. 79년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29, 55
申	44년생 요긴한 것이니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56년생 계획은 좋지만 실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68년생 발타오르는 기세이므로 잘 살펴봐야겠다. 80년생 매우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64, 46
酉	45년생 성장 동력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57년생 상대는 조건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69년생 땅이 깨지도록 긴 한숨을 할 일이 생길 것이다. 81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4, 27
戌	46년생 작품의 성장을 촉진하는 햇볕이 적절히 내리쬐는 이치이다. 58년생 혼란이 야기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70년생 관련 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82년생 들린 바와 실제와는 상당히 다르리라. 행운의 숫자 : 54, 70
亥	47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느니라. 59년생 선포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대비책을 강구 하라. 71년생 과거사와는 완전히 구분해야만 한다. 83년생 수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5,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 ‘최고다 이순신’ 끝나지 않는 출생 비밀에 시청률 부진

KBS 2TV ‘최고다 이순신(사진)’이 또다시 시청률 30% 달성에 실패하면서 KBS 주말극의 자존심을 구졌다.

24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32회는 전국 기준 27.5%, 수도권 기준 28.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체 50회 중 절반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최고다 이순신’은 전국 시청률 30% 고지를 밟지 못했다. 전작 ‘내 딸 서영이’와 ‘넝쿨째 굴러온 당신’은 불과 8회와 6회 만에 30%를 넘어섰다. 32회까지 평균 시청률도 ‘내 딸 서영이’는 29.1%, ‘넝쿨째 굴러온 당신’은 30.7%였다.

시청률이 지지부진하면서 ‘최고다 이순신’은 주말극 1위 자리도 MBC ‘백년의 유산’에 내줬다.



‘최고다 이순신’의 발목을 잡는 것은 끝날 줄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다. 현재까지 이야기의 이끌어온 중심축은 평범한 집안의 천재가 된 이순신(이민식)의 숨겨진 아이였다. 등장인물들이 하나 둘 이순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에 이야

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급기야 전날 방송 말미에는 송미령이 이순신에게 친부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 또 다른 출생의 비밀을 예고했다.

출생의 비밀이 실타래처럼 꼬이면서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 여지도 줄어들었다. 시청자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은 지지부진한 러브라인이다.

많은 시청자가 이순신이 자신의 조력자인 기획사 사장 신준호(조정석)와 사랑을 키워 가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순신과 준호의 사랑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작진은 앞으로 순신과 준호의 멜로에 힘을 실겠다고 밝혔지만 ‘출생의 비밀’ 골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한뉴스

TV 하이라이트

회귀 동식물 공존 지역 'DMZ'



6·25 특집 다큐 ‘기적의 땅 DMZ’(채널A TV·오후 7시10분)=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 2km에 걸쳐 조성됐다. 동서로 248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며 60년째 이 땅의 분단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인간에 의해 버려진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덕분에 DMZ는 생명의 땅으로 재탄생했다. 그곳에선 아름다운 사계(四季)를 배경으로 저어새와 꿩이 갈매기를 비롯해 ‘살아있는 화석동물’이라 불리는 산양 등 각종 희귀 동식물의 삶과 죽음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현재의 원시림 DMZ를 국내 최초로 3차원(3D)으로 제작했다.

정전 속 태어난 ‘김치 파이브’



정전 60년 특집 다큐 ‘기적의 김치 파이브’(KBS 1TV·밤 10시)=한국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1950년 12월, 군수물자를 실기 위해 함경남도 흥남으로 왔던 매리디스 빅토리 호에 피란민 1만4000명이 꾸역꾸역 올라탔다. 다리로 제대로 뿔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배 안에서 기적처럼 아기 다섯 명이 태어났다. 미국 선장관 선원들은 다섯 명의 아기들에게 ‘김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김치 5’다.

60여 년이 흐른 지금, ‘김치 5’ 수의사 이경필씨는 거제도에서 동물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그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거제도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맡고 나서서 거제도의 만능 일꾼으로 살고 있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감정을 만나러 가본다.

선포마음으로 떠난 7살 동갑내기



엄마 없이 살아보기(EBS TV·오후 8시20분)=씩씩한 여장부 은빈이(7세)와 질투쟁이 일곱 살 동갑내기 아론이(7세)가 매일이 가득한 광양 선포마을로 떠난다. 그곳에서 혼자서 손자들을 돌보는 경험이 없다는 할아버지 한 분만이 아이들을 맞는다.

할아버지는 난감하기만 하다. 그런 할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신났던 아이들. 그러나 갯벌에서 게 잡기, 스스로 빨래하기가 쉽지 않은 일, 결국 서로에게 짜증과 설움이 폭 발하고 만다. 힘든 한 때를 보내고 구세주인 할머니의 등장으로 상황이 일단락된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친손자 현도(7)가 “우리 할머니 손 잡지 마”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고, 아이들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흐른다. 과연 세 동갑네기는 역경을 딛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